루이스 영영일의 시리즈

음악을 듣거나 TV를 시청할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Turn down the volume!"이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 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TV를 켜라 / 물을 틀어라 / 가스를 켜라! Turn on the TV / water / gas!

> 2. 소리를 줄여라! Turn down the volume!

3. 조심해서 운전해라! Be careful about driving!

4. 그녀를 조심해라! Be careful about her!

> 5. 줄을 서라! Stand in line!

6. 버스에서 내려라! Get off the bus!

7. 비행기를 타라! Get on the plane!

8. 택시에서 내려라! Get out the taxi!

> 9. 택시에 타라! Get in the taxi!

10. 그냥 택시를 타라! Just take a taxi!

②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추신수, 마이너리거 생활비 19만 달러 기부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7· 사진)의 마이너리거 기부 소식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7일 "메이저리그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돕기로 한 빅리거들의 기부활동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며 추신수의 사례를 전했다.

메이저리그는 최근 선수 노조와의 합의로 코로나 19로 인해 시즌이 중단된 기간에도 각 구단이 소속 선수들에게 계약조건으로 명시된 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추신수는 과거 5년 동안의 마이너리그 생활을 돌이키며 텍사스 구단 산하 마이너리거들에게 19만 달러를 기부했다. '디 애슬레틱' 은 "메이저리 그 선수 노조에 가입된 몇몇 선수가 마이너리거를



돕고 있다." 며 추신수를 비롯해 세인트루이스의 애덤 웨인라이 트의 25만 달러, 콜로라도 다니 엘 머피의 10만 달러 기부 사실 을 전했다.

한편 추신수는 지난 2일 마이 너리그 선수 190명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지원했다.

추신수는 "나도 7년간 마이너 리그에서 보냈다. 15~20년 전보

다 마이너리그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모든게 어렵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 그렇다. 선수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야구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며 기부 이유를 전했다. 그는 지난달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2억 원을기부하기도 했다.

텍사스와 7년간 총액 1억3,000만 달러의 대형계약을 체결한 추신수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이다. 현재 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의 자택에서 가족과 생활하며 시즌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조던 드림팀 유니폼 경매 최소 2만 5천달러부터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7)이 1992 바르셀로나올 림픽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경매에 나와 농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USA투데이는 전날 바르 셀로나올림픽에서 조던이 실제 착용하고 친필 사인 까지 담긴 드림팀 유니폼이 경매에 부쳐졌으며, 입찰 가격은 2만5,000달러에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매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올림픽 농구는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프로선수들이 출전했다. 미국프로농구(NBA)는 바르셀로나올림픽에 맞춰 조던, 매직 존슨, 패트릭 유잉, 래리 버드등 슈퍼스타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구성했고, 대회 기간 상대 팀을 평균 44점 차로 꺾으며 손쉽게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조던 유니폼은 4강전 리투아니

아,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폼 앞면에 9번이 새겨진 이 유니폼에는 '최고의 소원 마이클 조던' 이라고 적힌 친필 사인까지 담겨 있다.

이 유니폼이 경매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1992년 마이클 조던 재단이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1만7,500달러에 팔렸고, 2013년에도 경매에 다시나와 당시 5만3,325달러에 낙찰됐다.

한편, 조던의 농구 관련 용품은 경매 시장에서 큰 인기이다. 조던의 올림픽 유니폼 최고가는 1984 LA 올림픽에서 입었던 유니폼으로, 2017년 6월 경매에 나와 27만3,904달러에 낙찰됐다. 이는 역대 농구 유니폼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이다. 또 2017년에는 조단이 LA올림픽 결승전에서 신었던 농구화가 역대 농구 선수 신발 경매 최고가인 19만373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이광연궁인회게시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시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ning) IRA'S IRA Rollover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